

고령층 전역 분산 젊은층 도심 유입...표심 향배 촉각

21대 총선 관전 포인트



3 도심 재개발 선거 변수되나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광주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당게는 수천 세대만 한 지역구에 보급자리를 틀면서 미묘한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화순과 담양 등 전남의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대규모 재개발에 따라 '광주 선거구 내 전남지역색'이 얼어져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가 마무리되고, 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는 이사를 마친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재개발 바람으로 상당수 유권자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표심 변화가 예상된다. 또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각 자치구별 소지역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에서 동구는 화순과 보성, 북구는 담양과 장성·곡성, 남구는 나주, 광산은 함평 지역이 주민이 많아 '지역 내 소지역성'이 강했는데, 재개발에 따른 이사 등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재개발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표심에 변화를 줬다.

한 정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재개발 등으로 이주를 하고 새로운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구에서 대거 유입돼 지역 표심이 기존 선거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와 재개발에 따른 표심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은 광주지역의 아파트 의존도가 높고, 신규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입주를 마쳤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78.9%

광주 올 하반기만 6200세대 입주
대규모 아파트 입주 수천표 이동
북구·동구 많고 남구는 가장 적어

(통계청 2018년 기준)로, 이는 전국 평균 61.4%보다 17.5%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새로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만4099가구로 지난해 7528가구의 약 두 배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만267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급 비중이 19%에 불과했지만 올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광주지역은 올해 하반기에만 13개 단지 6200세대가 넘는 입주가 마무리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2세대)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2097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1581세대)·서구(1143세대)·광산구(823세대)·남구(610세대) 순이다. 동구에서는 용산지구 1-1블록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528세대와 용산지구 모아엘가 에듀파크 570세대, 내남지구 진아리채 1차(483세대) 등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유권자를 받아들였다.

또 서구는 상록화관 부지에 들어선 농성 SK뷰 센트럴(842세대), 임대아파트인 광천 도나우프리(301세대) 등지로 유권자들이 주소를 바꿨다.

올해 초부터 대규모 입주를 진행한 남구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610세대 규모, 북구는 광주역 행복주택(700세대), 유평 유평레스 스키아뷰(102세대), 힐스테이트 본촌(834세대), 말바우 동우아스트로(158세대), 고운하이플러스(303세대) 등에서 유권자의 이동이 있었다.

광산구도 우산동 행복주택(361세대)과 12월 운남 진아리채 리버힐즈(462세대) 등지에 유권자들이 보급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개발 등으로 구도심 등지에 대거 거주했던 고령 유권자들이 광주 각 지역으로 분산되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돼 내년 총선 표심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를 마친 곳도 많아 출마 예정자들도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참석 전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이틀간 중국 방문...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의 정확한 시간

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공간이 만들어진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경제 주체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여건 만들 것"

총리 후보 지명 후 사무실 첫 출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랜저 차량에서 내린 정 후보자는 총리실 주요 관계자들과 악수한 뒤 최재진에게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다"며 "그간 제가 많은 정치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 선 바 있다. 이후 14년여가 지난 데다 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1억 4000만원...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4) 바나나



앤디 워홀 작 '바나나'(1966)

요즘 미술계에서 난데 없이 '바나나'가 화제다.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바나나라는 열대 과일은 비싸서 구경하기도 힘들었다. 그 값비싼 영광이 재현된 듯 얼마 전 열렸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1960~)의 바나나 작품 '코미디언'이 1억 40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공급해진다.

포장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를 전시장 벽에 붙여둔 바나나 한 개. 관람객들이 전시중인 바나나가 무슨 의미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사이에 행위예술가가 그 바나나를 먹어치우면서 작품 '바나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 같다. 코미디 같은 작품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다소 당황스럽지만 미술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과 도전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각광 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처럼 여러 가지 사물들을 벽에 테이프를 붙이는 패러디를 하고 있어 모

처럼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유쾌하다. 일찍이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1928-1987)은 실크 스크린 작품 '바나나' (1966년 작)를 통해 일상에서 익숙한 상품이나 과일 이미지를 오브제로 사용하면서 예술과 일상을 화해시키고자 했다. 노란 바나나 옆에 곱질색을 벗겨 붉은 색이 감도는 바나나 한 개를 더한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변칙적인 색채 조합과 그만의 감각이 돋보인다.

앤디 워홀은 '바나나'와 같은 팝 아트 작품들을 통해 지금까지 미술의 본질이라고 여겨왔던 작품의 독창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조롱하는 대량생산으로 예술작품의 대량화를 가능하게 했는데 역으로 달랑 바나나 한 개를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도발이 아이러니하다. '미술 아닌 것'을 미술이라 우길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미술'이고, '누구나 미술가'임이 가능해졌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제24회 땅끝해남
해남이
하늬맛이 축제

2019. 12. 31. 화 ~ 2020. 1. 1. 수
해남 땅끝 관광지 일원

해남이행사 ·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 달집 태우기 · 해맞이 · 무대공연 · 떡국 나눔식 · 2020 해남방문의 해 점등식

회원 오시아노 해남이 행사
2019. 12. 31.(화) 15:00~18:30
오시아노 관광단지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
2020. 1. 1.(수) 05:00~08:00
오소재 소공원

해남군